

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

행 5:17-32

8. 15. 21 주일 설교 노트

1. 사명 : “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”

• 17-18절,

“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,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”

a. 축복 뒤에 찾아온 고난

b. ‘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’..

c. ‘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’

= ‘젤로스 ζήλος’ - ‘열정’이라는 의미

cf) 롬 12:19, “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”

• 19-20절, “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,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”

a. 사두개인 vs 주의 사자(천사)

cf) 행 23:8, “..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..”

b. 기적에 대한 기준 - 하나님의 주권

c. 사명 : ‘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’

cf) 마 21:3, “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(풀어주리라)”

2. 순종 : “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”

- 21절, “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

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”

- ‘새벽에’

- 22-25절, “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,

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자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,

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,

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”

- 직분에 안주하는 자 vs 사명을 따르는 자

- 26-28절 : 종교지도자들의 심문

“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다라.

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,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

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”

- ‘이 이름으로... 이 사람의 피를...’

- 29-32절 : 사도들의 증거

첫째, 29절 “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”

둘째, 30-31절 “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,

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”

셋째, 32절 “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”